

‘굿보이’서 액션 도전 박보검…“6개월 동안 매일 복싱 훈련”

복싱 금메달리스트 출신 경찰 운동주 역…“연기 한계 넓혀가고 싶어”

“장르 자체가 제게는 새로운 도전이 있습니다. 이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보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꼭삭 속 앓수다’에서 속 깊고 다정한 판석이 역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울렸던 배우 박보검이 이번에는 유쾌하고 통쾌한 액션물로 연기 변신에 도전한다.

박보검은 지난날 29일 열린 JTBC 새 드라마 ‘굿보이’ 제작발표회에서 “든든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며 세상을 향해 목소리 내는 캐릭터의 모습이 멋지게 느껴져서 출연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31일 처음 방송된 ‘굿보이’는 특채로 경찰이 된 메달리스트들이 불의에 맞서 싸우는 코믹 액션 수사극이다.

박보검은 11년 만에 부활한 메달리스트 특채 제도로 경찰이 된 강력특수팀 순경 운동주를 연기한다.

혜성처럼 등장해 타고난 맷집과 빠른 주먹으로 복싱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운동주는 경찰로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고, 오직 정의를 위해 몸을 던진다.

박보검은 “한 번쯤 시도해보고 싶었던 액션 수사물에 처음 도전해봤는데,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마음은 한 번도 힘은 적이 없었다”며 “오로지 더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복싱을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선 선수 같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6개월 동안 매일매일 근력 운동과 복싱 훈련을 했고, 다른 배우들과 시간을 쪼개가면서 액션 합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 ‘구르미 그린 달빛’, ‘꼭삭 속앓수다’ 등에서 로맨스 연기를 주로 선보여온 박보검은 이번 작품을 시작으로 연기를 확장하고 싶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그는 “30대에 접어들면서 이전보다는



박보검이 JTBC 새 토일드라마 ‘굿보이’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금 더 과감해졌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차근차근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면, 이제는 조금씩 속도를 내서 해보지 못했던 역할과 장르에 도전하며 제 한계를 넓혀가고 싶다”고 밝혔다.

‘굿보이’에는 박보검을 비롯해 김소현, 이상아, 허성태, 태원석이 함께 출연해 국제대회 메달리스트 출신 경찰 5인방으로 호흡을 맞춘다.

김소현은 사격 금메달리스트 지한나를, 이상아는 펜싱 은메달리스트 김종현을 연기한다. 허성태는 레슬링 동메달리스트 고만식으로, 태원석은 원반던지기 동메달리스트 신재흥으로 출연한다.

김소현은 “대본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큰 에너지를 느낀 작품은 처음이었다”고 말했으며 허성태는 “액션신을 글로 읽는데 눈물이 나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 서로를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이 녹아있어서 감동적이었다”고 전했다.

패기 넘치는 다섯 경찰관과 대립하는

‘빌런’ 민주영 역에는 오정세가 나선다. 사람 좋은 웃음 뒤에 큰 욕망을 숨기고 있는 관세청 7급 공무원 역이다.

오정세는 “우리 드라마는 신나고, 액션도 화려하고 재미가 있는데, 캐릭터마다 특유의 짙한 매력에 있다”며 “민주영이 이들(경찰 5명)에게 자국이 돼야 했기 때문에 연기로 어떻게 이들을 자극해서 달리게 할 수 있을지 감독님과 많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연출을 맡은 심나연 감독은 “‘굿보이’는 액션과 인물들의 사연이 공존하는 정통적인 드라마의 요소를 갖춘 작품”이라며 “주말에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드라마가 될 것 같다”고 소개했다.

“박보검이 연기한 운동주는 만화 ‘슬램덩크’ 속 강백호 같은 성격을 가졌어요. 개인의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몸을 내던지는 이상적인 모습이 ‘사이다’를 선사할 겁니다.” (심 감독) /연합뉴스

최연태의 오늘의 운세		음력5월 7일 천문역연 (062)673-2427
	쥐띠: 자녀와의 대화가 큰 기쁨을 줄 수 있다. 36년생 선택의 순간, 직감을 따라라. 48년생 좋은 소식이 멀리서 날아온다. 60년생 자존심보다 실리를 택할 때이다. 72년생 말은 적게, 행동은 묵직하게 오늘의 성실함이 내일의 기적을 만들어낸다. 84년생 한 박자 쉬어가는 것이 오히려 득이다. 96년생 멀리 있는 인연보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보라. 08년생 융통성 있는 대처가 큰 이익으로 이어진다. 행운의 수: 1.8 행운의 색: 파란색	
	소띠: 반복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37년생 힘들어도 참은 것에 대한 보답이 돌아올 것이다. 49년생 무리한 일정은 피로를 부른다. 61년생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표현해보라. 73년생 관계에서 주도권을 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85년생 실천이 가장 강력한 실득이다. 97년생 도전에는 위험도 있지만, 성장도 따른다. 09년생 눈치 보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라. 행운의 수: 0.9 행운의 색: 분홍색	
	호랑이띠: 대인 운 상승, 새로운 만남에 기대를 가져도 좋다. 38년생 다툼은 피하고 관용을 선택하라. 50년생 규칙을 따르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든다. 62년생 자기계발에 좋은 기운이 흐른다. 74년생 주변 시선보다 자신의 선택을 믿어야 한다. 86년생 도움을 줄수록 인복이 커지는 날이다. 98년생 도전하는 만큼 성과도 따라온다. 10년생 친구와의 대화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 행운의 수: 4.5 행운의 색: 흰색	
	토끼띠: 감정 표현은 솔직하게 그러나 절제 있게 하라. 39년생 누군가의 말보다 내 기준을 믿어야 한다. 51년생 건강을 소홀히 하면 탈이 날 수 있다. 63년생 정리 안 된 생각은 행동에 혼란을 준다. 75년생 피로 누적, 충분한 수면을 가져야 한다. 87년생 집안일이 정리되면 마음도 편안해진다. 99년생 또래와의 협력에서 좋은 결과를 보겠다. 11년생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좌절하지 마라. 행운의 수: 2.3 행운의 색: 검은색	
	용띠: 지출 계획을 다시 점검하라. 40년생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 52년생 마음을 여러 주변도 따뜻하게 변한다. 64년생 일이 풀릴 조짐,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진행하라. 76년생 큰 욕심을 내면 오히려 마음의 병이 생긴다. 88년생 조금만보다 꾸준함이 답이다. 00년생 가까운 사람의 조언이 복이 된다. 12년생 선배나 윗사람의 조언이 귀중하다. 행운의 수: 3.7 행운의 색: 파란색	
	뱀띠: 가족간의 갈등은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41년생 감정의 흐름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좋다. 53년생 말 한마디가 오히려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 65년생 겸손한 자세가 귀인을 부른다. 77년생 뜻밖의 귀인이 방문할 수 있다. 89년생 직장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01년생 작은 실수가 큰 깨달음을 줄 수 있으니 너무 주눅 들지 않아도 된다. 행운의 수: 6.8 행운의 색: 흰색	
	말띠: 작은 변화가 큰 전환점이 되어준다. 42년생 주변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지켜라. 54년생 집안 분위기가 따뜻해지는 날이다. 66년생 가족과의 화합이 복을 부른다. 78년생 자기표현이 중요한 날로 소극적이면 손해 볼 수 있다. 90년생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주변의 조언을 구한다. 02년생 애정운 상승, 짝사랑이 발전할 수 있다. 행운의 수: 1.6 행운의 색: 보라색	
	양띠: 중요한 선택은 오늘보다 내일이 낫겠다. 43년생 이성적인 판단이 불필요한 충동을 막는다. 55년생 작은 정성이 큰 인연과 복을 부른다. 67년생 한 발 물러서면 오히려 길이 보인다. 79년생 무리한 추진보다 타이밍을 보라. 91년생 무심코 한 말이 관계를 해칠 수 있다. 03년생 친구와의 대화에서 깊은 공감이 생긴다. 행운의 수: 0.5 행운의 색: 민트색	
	원숭이띠: 고집을 부리면 손해를 볼 수 있다. 44년생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 경청이 필요하다. 56년생 오랜 친구와의 연락이 반가운 날이다. 68년생 작은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80년생 사소한 일도 소중히 여겨야 복이 따른다. 92년생 불편한 관계도 오늘은 화해의 기회가 되어준다. 04년생 주저하지 말고 진심을 표현하라. 행운의 수: 2.9 행운의 색: 빨간색	
	닭띠: 타인의 간섭보다 자신의 의지를 따라라. 45년생 투자 관련 정보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57년생 무리한 이등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69년생 소소한 실수가 의외의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 81년생 단기적 유혹보다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도록 노력하라. 93년생 주변 기대가 부담이 아닌 동력이 된다. 05년생 감정적 선택은 후회를 남긴다. 행운의 수: 0.1 행운의 색: 갈색	
	개띠: 기다리던 연락이 오거나 반가운 소식이 있다. 46년생 관절이나 근육격계 건강에 주의하라. 58년생 쌓였던 피로가 신체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하라. 70년생 별다른 성과를 기다리기 어려운 날이다. 피로만 가중되니 일찍 귀가하라. 82년생 배우자나 자식과의 대화에 집중하라. 94년생 기회는 순식간에 지나간다. 눈을 크게 떠라. 06년생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태도를 단단히 하라. 행운의 수: 4.8 행운의 색: 살구색	
	돼지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라. 35년생 오늘은 말보다 실천이 더 설득력 있겠다. 47년생 귀인의 도움이 현실이 된다. 59년생 변화를 두려워말고 도전해보라. 71년생 마무리가 중요한 날이니 끝까지 집중하라. 83년생 우정이 깊어지는 계기를 만날 수 있다. 95년생 실수가 있어도 성실한 태도가 만회한다. 07년생 지나친 완벽주의는 피로만 남긴다. 행운의 수: 5.7 행운의 색: 분홍색	

		광주 FM97.3MHz, 전남 동부권 FM103.5MHz 청취자 참여전화 080-9701-333 수신자부담 무료 교통제보전화 080-333-8000
● 주요 프로그램 안내		
출발! 광주대행진 (07:00~08:53) 프로듀서: 정회준 진행자: 노희설 작가: 박지영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광주교통방송의 아침 대표 교통정보 프로그램으로 재난과 교통 위주의 정확하고 생도감 있는 출근길을 책임집니다.	남도매거진 (16:05~16:55) 프로듀서: 이진아 진행자: 장원나 작가: 김시영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이슈와 정보, 인물, 문화를 다양하게 다루는 지역밀착형 종합정보 프로그램. 남도가 빠지면 섭하지라~	
tbn 차차차 (14:05~15:53) 프로듀서: 권유경 진행자: 윤지현 작가: 정안숙 즐거움전은 이제 그만~ 오후의 나른함을 타파하는 시간! 충겨운 트로트 노래와 신나는 코너로 즐거운 길벗이 되어드립니다.	달리는 라디오 (18:05~19:53) 프로듀서: 김미경 진행자: 최유규 작가: 한효정 복잡한 퇴근길의 편안한 친구 같은 방송! 광주교통방송의 저녁 대표 교통정보 프로그램으로 더 안전하고 더 신속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KCTV광주방송 채널 5번 뉴스제보 FAX) 062-417-5041 www.kctv.co.kr		◆ 이번 주 주요프로그램 ◆
프로그램 안내		
KCTV뉴스 (19:00~19:20, 23:00~23:20) 지역에서 일어난 다양한 주요 소식을, 동네 이야기들을 전하는 데일리 뉴스.		지역채널 커머스 < 못나인 김치, 반건조 노가리 > 전국 농수산업체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작 방송되는 지역채널 커머스, 충북의 대표 김치 브랜드 '못나인 김치'와 포항에서 직접 생산된 '반건조 노가리'가 지역민을 찾아간다. 방송 : 6월 2일(월)~7일(토) 06:00~07:00, 16:00~17:00
포토힐링타임 아름다운 자연과 인물을 담은 사진을 재구성한 영상앨범. 아마추어 사진작가, 전문 활동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네트워크발굴 서울공감 < 군산 활어회, 울산 공학 맛집 편 > 4곳의 지역케이블TV 방송국이 공동제작하는 현지인이 찾는 지역 맛집 탐방 프로그램. 이번 주는 상상하고 옮기는 맛으로 유명한 군산의 활어회 식당과 울산에서는 고소한 풍미로 이름난 한우생곱창 맛집을 찾아간다. 방송 : 6월 3일(화)~7일(토) 14:00~14:30
출발V시대 (12:30~12:50, 20:30~20:50, 04:30~04:50) 시청자들이 직접 촬영하고 만든 아마추어 방송인들의 뜻뜻하고 생기 넘치는 영상제작물을 만나본다.		KCTV특집 < 현충일 특집 '강뉴, 승리의 이름으로' > 한국전쟁 당시 무패전사의 전설을 남겼던 에티오피아의 강뉴(Kangnew)부대의 기록과 역사를 되돌아 보고 당시의 아픔과 헌신했던 이들을 기억한다. 방송 : 6월 6일(금)~7일(토) 13:00~13:50